

社說

현상황 극복은 민주총장 선출로

「제도」보다 「인물」에 초점둔 후보 선출을

큰 시련이 분명하다. 현상황을 점검해볼 때 한 대학의 상징인 총장이 임시부정으로 법정 출두할 때 이시장은 구초에 간헐 있는 신세에다 총장실은 학생들에 의해 점거되어 있다. 이 이상의 시련도 상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東國 83 성상에 이보다 더 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시기 할 때 그야말로 최악의 현실이다.

얼마전 제단 이사장은 李冠憲 총장이 명예롭게 퇴진하기 위해 문교부에 해임요청을 했지만 지금의 사태에서의 「명예」는 진정한 「명예」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 실제 李冠憲의 운신에 따른 점입이 그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음이다.

우리는 현상황하에 극복의 대안은 민주총장선출이라는 사명만이 그 유일한 결론으로 본다. 대학의 구조상 총장에게 행정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권과 상징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에 인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본교의 경우 총장이 제단·총단과 총장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자성을 상실하기 시작한 이래 패행 극복의 대안은 민주총장선출이 되고 만다. 역대 총장의 행적을

돌취보면 낫부끄러워지는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도 구조적인 것이다. 정권으로부터의 대외중속성이 작용하는 부분이 상당수이며 제단과 총단의 입김이 좌지우지되어 왔음도 직시해야 한다. 「주인없는 학교」라는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에 일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체교수회 대의위원회는 총장임 후보자 자격 요건을 「본교 건학이념에 투철하고 본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10년이상 본교 근무중인 교수」로 규정하고 있다. 문구상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음이 교수회 나 투르테로의 가슴앓이 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전국10여개 대학에서 총장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민주적 「제도」의 함정은 궁극적으로 구체적 인물에 대해 뜻을 맞출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모든 민주적 제도의 허구성을 들춰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장선출제도가 만족감을 주고 있지는 못하나 교내에서 융성적으로 추진되는 몇몇 교수들의 선거운동을 감안할때 현 상황 극복의 대안은 민주총장선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단과대선거에 바란다

「민중」가능케하는 대중토론의 장으로

이제 불교대를 필두하여 이번주내에 모든 단과대에서는 학생회총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11개 단과대중 5개 단과대가 결선이며, 나머지는 관내 학생회에 의한 학생회총장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당연히 모든 이목은 경선을 하게된 5개 단과대에 집중된다. 이것이 내년 3월로 남겨진 총학생회장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선을 하게된 입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의욕을 과시하며 대중적인 검증에 받게되고 있다. 특히 이번의 공약사항중 특기할 만한 것은 불교대의 「북한 불적담사추진」과 경상대의 「북한 주요 산업체 산업시설을 위한 방북준비위원회」에 대한 제안, 인문대의 「김일성 종합대학 인문대 학생들에 대한 초청」등으로 요약된 통일 의지들을 담은 내용들이다. 또 「학회전설 준비위원회」나 「학술진흥연구회 활용방안」에 대한 공약들도 많이 눈에 띈다.

이러한 것들은 그간 학생회 체계에서 많이 논의된 것인 반면 「선명한 정치투쟁」과 「파악적 학원지주회 투쟁」을 내세우며 기존의 전통적 학생회와 대립되는 민주적 학생회의 관점에서 대총사업을 해나간다는 주장의 목소리도 높다.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대중들의 투표에 의한 평가 밖에 없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검증이 상시화되어 이후 학생회 사업이 평안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장은 자신이 내건 공약사항을 지켜내려는 실천적고민과 행동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발을 하기도 전에 벌써 큰 실책들을 범하고 있는 것 같다. 단과대선거는 한해동안의 단과대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것인 만큼 그 중요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바로 그 앞에 닥쳐온 「총장선거」의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특정정권이 구상한 공안정국속에서 민민세력에 대한 탄압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과대선거는 「민주적 총장선거」를 가능케 하는 대중적 토론회의 장이 되기를 많은 학생들은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거제에만 매몰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다.

실로 작은 것을 담아서 결국은 큰 것을 잃어 버리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진정한 동국의 미래에 대해 기대 걸 수 있는 단과대선거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돼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봉급자 희생강요

최근 들어 우리의 소득세중 근로소득세의 세율이 너무 높지 않으나 하는 불만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또한 각도하 신문의 경제정보에 의하여 사실로서 굳어지는 느낌이다. 이러한 불만이 분명히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논의에는 보다 철저한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으면 자칫 상식적인 수준에서 시류에 편승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羅城麟 (한대대학교·재정학)

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자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득신고액을 바탕으로 국제정에서 인정과세를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흔히 그들의 소득신고 액수가 정적하지 못하거나 인정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정적원들의 부정이 개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조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공평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공평성이란 조세부담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보다 비합리적인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한 사회보장제까지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현행 갑근세율이 높다는 주장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단지 저소득 근로자들의 한계 세율이 그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정도로 높기에 그들의 조세부담은 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근로소득세율은 타소득원과 비교해서 상대적 세율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절대적 세율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행 근로소득세의 인화 보다는 타소득원에 대한 보다 확실한 과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소득세의 방향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조세든지 그 논의를 전체적인 조세의 구조에서 논의가 되어야 그 개별조세 한가지 만을 대

자유직종...소득보다 세금부담적어 자본소득 다른 과세 강화가 타당

자유직종...소득보다 세금부담적어 자본소득 다른 과세 강화가 타당

가 취급해야 하고(수직적 공평성), 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게 취급해야 하고(수평적 공평성)한다는 것이다. 현행 우리의 소득세는 분명히 수직적 공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현행 근로소득세의 세율이 높다는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부담되는 간접세가 소득을 고려하여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더 불공평한 조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현행 조세체계는 분명히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체계이고 이러한 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비율을 더 높였으며 누진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으로 이야기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득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가 자신의 담세능력 내에서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 각 직종의 과세대상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데에 귀착된다. 이 문제에 있어 가난한 자는 무조건 면세를 부여한 자에게는 터무니 없이 높은 세율을 주장하는 감정적인 주장은 우리 모두 삼가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을 저지름이 없이 자기 능력을

주체간의 의견만 대립

이것도 우리 동양에서는 총장선출에 관하여 교수, 학생, 교직원 및 제단 간에 합의의 보지 못하고 각 주체들의 의견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주체간의 총장선출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민주적·자유적·합리적 총장 선출」이라는 논리적 전제에는 의견의 일치로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각자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각기 주체들의 위상 정립과 권력화대의 추구에 의한 것으로 극히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 대학의 대표자이며 행정 책임자인 총장의 선출에 있어서는 교수, 학생, 교직원이 참여해야 하고 이러한 대학주체에 의하여 총장은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의 방법이 있어서는 민주적 선출이라는 민주적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서울캠퍼스의 모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교수 학생·교직원과 함께 총장선출을 하지 못한다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대학의 자주화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수 단독의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학 제 주체들의 총장선출 참여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시대적 당위라고 할 것이다.

총장은 대학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학사 행정의 전담 지휘자이며, 대학주체의 보호자 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총장선출참여는 시대적 조류가 되었다고 거역할 수 없는 분부가 되었다.

그러하여 선거에 의한 총장선출에 있어서 제 주체들의 선거참여는 당연하며, 이러한 선거참여가 자유적·민주적·합리적 선거방식이라 할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을 저지름이 없이 자기 능력을

총장선출안의 민주적 합의 기대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총장선출에 관하여 교수, 학생, 교직원 및 제단 간에 합의의 보지 못하고 각 주체들의 의견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주체간의 총장선출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민주적·자유적·합리적 총장 선출」이라는 논리적 전제에는 의견의 일치로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각자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각기 주체들의 위상 정립과 권력화대의 추구에 의한 것으로 극히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 대학의 대표자이며 행정 책임자인 총장의 선출에 있어서는 교수, 학생, 교직원이 참여해야 하고 이러한 대학주체에 의하여 총장은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의 방법이 있어서는 민주적 선출이라는 민주적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서울캠퍼스의 모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교수 학생·교직원과 함께 총장선출을 하지 못한다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대학의 자주화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수 단독의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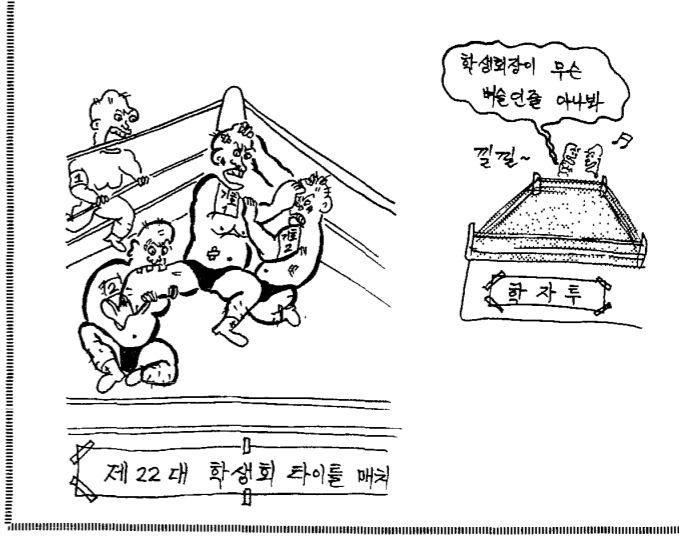
대학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학 제 주체들의 총장선출 참여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시대적 당위라고 할 것이다.

총장은 대학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학사 행정의 전담 지휘자이며, 대학주체의 보호자 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총장선출참여는 시대적 조류가 되었다고 거역할 수 없는 분부가 되었다.

그러하여 선거에 의한 총장선출에 있어서 제 주체들의 선거참여는 당연하며, 이러한 선거참여가 자유적·민주적·합리적 선거방식이라 할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을 저지름이 없이 자기 능력을

東國漫評



제 22대 학생회 타이틀 바꿔

(1면에서 이어짐)

- 응시자격
 - 가. 199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다.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가. 본 대학교 내 복수지원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복수지망은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 동일계열에 한하여 제2, 3지망까지 허용한다.
 - 단, (1)선학과를 제2, 3지망으로 지망할 수 없다.
 - (2)한외과 지원자는 의예과, 의예과 지원자는 한외예과에 한하여 제2지망까지 허용한다.
 - 나. 예·체능계의 복수지망은 허용하지 않는다.
 - 가.정교육과(경주캠퍼스 포함) 및 불교아동학과는 남학생이 지원할 수 없다.
 - 다.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교차지망은 허용하지 않는다.
 - *서울캠퍼스 영어영문학과, 전자계산학과, 산업공학과는 야간수업을 할수있으며 졸업도 가능.
- 전형일정
 - 전기 전형
 - (1)입학원서 교부: 1989. 11. 17(금) - 11. 24(금)
 - (2)입학원서 접수: 1989. 11. 21(화) - 11. 24(금) 오후 5시까지
 - (가) 토요일·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입학원서를 교부함.
 - (나) 우편접수는 '89. 11. 24(금) 오후 5시까지 도착한 입학원서에 한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가) 서울캠퍼스: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무과
 - (나) 경주캠퍼스: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무과
- 전형료
 - (가) 일반계: 25,000원
 - (나) 예·체능계: 30,000원 (실기고사료 5,000원 포함)
 - (다) 입학원서 및 요강대: 1,000원
- 대학입학 학력고사
 - 1989. 12. 15(금) 08:40 - 17:10(서울·경주 캠퍼스 동일)

후기 전형

- 입학원서 교부: 1989. 12. 29(금) - 1990. 1. 6(토)
- 입학원서 접수: 1990. 1. 3(수) - 1. 6(토) 오후 5시까지
- 대입학 학력고사
 - 1990. 1. 22(월) 08:40 - 17:10(서울·경주 캠퍼스 동일)

계열	학력고사	내신	실기고사	합계
인문·자연	340점(70%)	145.7점(30%)	-	485.7점(100%)
예·체능	340점(30%)	340점(30%)	453.3(40%)	1,133.3점(100%)

*과목별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과목은 실업 및 제2외국어 과목 중 택1한다.

- *원서 교부 장소
 - 가. 서울지역: 교보문고, 종로서적, 동화서적(강남), 세종문고(롯데월드), 한가람문고(고속버스터미널)
 - 나. 지방: 국민은행, 한국상업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각지점
 - *상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교무과, 또는 경주 캠퍼스 교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은행명 | 해당지역 |
|------|--|
| 국민은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제주, 강릉, 수원, 인천 |
| 상업은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경주, 제주, 마산, 속초 |
| 조흥은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경주, 제주, 마산, 강릉 |
| 한일은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제주, 전주, 포항, 청주 |
- | 서울캠퍼스 | 경주캠퍼스 |
|----------------------|----------------------|
| ●주소: 100-715 | ●주소: 780-714 |
|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번지 |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번지 |
| ●전화: 직통 (02)272-8723 | ●전화: 직통(0561)43-1030 |
| 교환 (02)267-8131~9 | 교환(0561) 2-0131~6 |
| 267-8141~5 | 43-1011~20 |
| 야간 (02)267-8145 | 야간(0561)43-1020 |

동국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진정한 의미의 한국 현대 철학이란 오늘날 한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의 철학연구자들이 행하고 있는 철학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한국의 불교·유교 철학을 빌릴 수도 있고, 주체철학을 빌릴 수도 있으며, 서양의 언어·분석철학을 빌릴 수도 있고, 변증법 역사적 유물론을 빌릴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철학들이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얼마만큼의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에 있다. 또한 지구촌이라는 좁혀진 공간과 시간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인의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문제제기가

있다면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한국만의 문제거리란 없으며, 따라서 철학이 있을 뿐이지 한국만의 특별한 철학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체적인 1980년대의 한국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적이고 민주화된 통일국가를 이루어 이땅의 모든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참으로 인간화된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는 민족적 과제가 구체적인 1980년대의 한국의 문제를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사상이나 철학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처방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가지 처방이 정해 마

우리문제 해결 위한 '자생적' 철학 요구되

- 80년대 한국철학계의 동향과 전망

◇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노정되기에 이른 우리사회의 구조적모순을 해결하기위해, 학계에서는 사구체논쟁, 혹은 사회 성격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 논쟁은 그동안 기성보수학계가 거의 전적으로 그 연구관심의 영역밖에 있었던 연구주제들에 대한 파란만장한 접근을 하게 하였으며, 다양한 영역의 학살연구자들로 하여금 그 영역을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긴밀한 학제적 연계를 맺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80년대의 학문활동은 '학살운동'이라 칭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교대학원에서는 '80년대 한국사회의 학살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5편의 발표논문 가운데 '80년대 한국철학계의 흐름과 전망'을 요약해서 실는다. (편집자註)

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는 소위 제야철학도 제야로 남아 있지 않고 하나의 공식적인 틀을 지닌 학회로 출몰하게 되면서, 기존의 철학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기존의 철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II. 기존의 아카데미즘적 철학의 전개

여기서 기존의 아카데미즘적 철학이라 함은 기존의 대학 강단의 철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강의되어진 철학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결과물들은 그들의 번역서, 논문, 단행본 등과 그들이 중심이 된 각 철학회의 학회활동의 축적물들인 학회지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80년대에 들어서서 수많은 철학

에 대한 관심이 80년대에 오면서 사들해진 대신에 언어·분석철학과 현상학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고, 비트겐슈타인과 후설 등의 저작과 관련된 논쟁, 크립키 등의 실리 철학과 진리이론 등을 중심으로 다루는 후기 분석 철학자들이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편 현상학의 도입은 사회인식, 심리학, 종교학, 문학과 예술등의 분야에 있어서 방법론에 대한 반성을 가져오게 하였다.

언어·분석철학과 현상학에서 비롯된 명료한 언어사용과 방법론적 반성은 장단철학의 아카데미즘을 활성화시키고 철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오긴 하였지만, 길을 예리하게 걸기에는 하였어도 그 길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플즈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비판적 합리주의' 그리고 '비판 이론' 등은 이론의 현실 적용성이 문제시되었다. 즉 그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채 순전히 학문의 공간 속에서만 펼쳐졌으며 인체의 내면성정을 한계로 벗어 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 철학계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주요 철학회로는 우선 한국철학회, 철학연구회, 대한철학회등을 들 수 있고 그외에 지방에 사부소문 문법철학회(호남중심), 영남철학회(영남중심), 한국동서철학회(호서중심)가 있고, 올해 6월에 진보적 철학연구자들에 의해 창립된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있다.

한국철학회에서는 1976년부터 16개 분과연구회가 구성된 이후로 분과별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성과물들이 차츰 나오기 시작하였고, 각 분과 연구회 간에 연합 세미나도 시도되고 있다. 그 대표적 인 성과물로는 한국동양철학회의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식론'(1982. 7), 한국현상학회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1983. 2), '현상학과 개별과학'(1986. 3), 분석철학연구회의 '비트겐슈타인의 이해'(1983. 10)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의 아카데미즘적 철학에 있어서의 분석철학이 전성기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분석철학회는 현상학, 윤리학분과연구회, 종교철학분과연구회 등과 각각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분과연구회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 한국철학회 차원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춘계·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의학, 문학, 정치학등과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타 학문과의 교류를 시도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철학연구회는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철학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철학회의 흐름과 커다란 차이점은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당시에 생점이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함으로써 한국철학회와는 성격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철학연구회가 춘계·추계 학술발표회의 주제로 삼았던 것으로는 현대 사회에서의 철학의 역할, 종교철학이란 무엇인가(1985), 현대철학과 형이상학에의 길, 역사와 이데올로기(1986),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철학적 분석, 철학과 우리 현실(1987), 북한의 철학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에서의 맑스즘 수용(1988), 주체사상의 철학적 조명(1989)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마감하면서 한국철학계에 나타난 주목할만한 사실은 첫째로 1988년10월 제1회 전국철학자연합 학술대회(전남대)가 열렸고, 1989년10월에 제2차대회(경북대)가 개최됨으로써 한국안에 있는 제 철학자의 통합을 위한 모음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새로운 실천철학적 관점에 선 진보적 소장철학연구자들이 1989년6월에 '한국철학사상연구회'를 창립한 것이다.

III. 새로운 실천적 철학의 등장

번혁의 현장에서 철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말부터였고, 80년5·18이후부터는 운동대열들이 운동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상적 무기로서 철학을 요구하게 되었다. 철학에 대한 관심의 출발은 변증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왜곡된 역사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열망은 운동대열들로 하여금 변증법을 적극수용 검토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증법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제시되고 정립되는 과정을 거치지않은 채, 변증법의 제반 범칙에 대해 무매개적인 학습과 조급하게 실천에의 연결을 시도하려 하였다. 그 이후, 철학이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개론서들이 읽혀지기 시작했다. 이들 개론서들은 철학을 세계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나 설명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쓰여진 것들이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철학은 단순한 세계관수립이나 다른 학문의 근거라는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닌 투쟁의 무기로서 이해되어지게 되었고 80년대 변혁운동의 주체들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철학교과서가 쓰여지게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개론서들은 모두가 변증법적·역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예와 쉬운 설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는 맑스 철학에 관한 입문서로서 주로 서구 사회에서 쓰여진 것들이 직접 번역되었으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동구와 소련에서 쓰여진 것들이 직접 번역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맑스주의 수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구체화」의 문제, 한국에서의 맑스주의의 전통의 계승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1989년1월을 전후하여 북한의 철학발전들(주체사상총서, 조선철학사등)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팜플렛 형식으로 주체사상이 일부에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철학이 시시때때로 등장한 것은 88년말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경향은 계약철학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철학계에도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고, 급기야는 아카데미즘 철학을 고수해온 '철학연구회'에서도 북한의 철학사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계약철학계 자체에서도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한국사회분석 철학서가 나오게 되었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철학개론서와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서도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실천적 입장에 선 철학은 철학연구자들에서 나

났지만 기간동안 철학연구자들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담당해 내야 하는 과제와 그를 실현해내기 위한 조직형태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타대학 일부를 흡수하여 87년9월에 '사회철학연구회'가 발족을 보게 되었다. '사회철학연구회'는 그 회력에 명시된대로 「과학적 세계관의 확산과 심화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비롯한 제반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사회철학연구회의 주요한 업적은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편찬계획을 세워 (철학대사전)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동년(1980. 5)을 편찬하는 산과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이 사전은 기본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계승과 뿐만 아니라, 현대 부르주아 철학의 주요사상, 그리고 중국과 한국철학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는데, 이는 진보적 입장에 선 소장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의 결실임과 동시에 한국 철학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진보적 소장 철학 연구자들의 모임이 명실공히 학회로 등장하게 된 것은 기존의 「한국철학회」와 「사회철학연구회」가 발전적으로 해산하면서 1989년3월에 발족하게 된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이하「한철연」)를 통해서였다. 약 130여명(가운데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9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해철·마르크스·변증법·이데올로기·논쟁사·분과 등 8개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한철연」은 기존의 철

이러한 철학적 개념과 논의를 대중이 알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는 것으로, 오랫동안 지식인의 특권으로서 소유되어왔던 철학을 대중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개념을 쉬운 말로 풀이함으로써 각종 현실을 사용하여 과연 대중이 스스로 사유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개념을 쉽게하고 복잡한 논의를 간단히 하는 것은 철학의 대중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못된다.

나아가 진정한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대중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의 전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철학계 내에도 예측의 구조를 파헤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철학적 자체의 문제만 놓고 볼 때는 아카데미즘적 철학과 실천철학이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철학에 대한 관점과 방법론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대화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 의한 우리의 철학이 어떤 영역에 막혀만 있다. 아카데미즘 철학계에선 지금까지 거시적 이론연구에만 국한한 관심의 영역을 넓혀서 진실한 현실 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하고, 실천 철학 쪽에서도 깊은 철학계의 업적을 장그려 무시해서는 안된다. 아카데미즘적 철학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천철학이 치밀한 논리와 방법론이 부족하면 두 진보적 철학이 서로 상호침투함으로써 「올바른 관점과 옳은 방법론」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생적인 한국철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선형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 온 철학은 과거의 전통철학(예를 들면 儒·佛·道)의 재해석이나 현재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학을 귀수입한 것들이었다.

전통철학이든 수입철학이든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책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철학연구자가 서양철학을 우습게 보거나, 서양철학 연구자가 우리의 전통철학을 고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분석철학이든 맑스철학이든 수입철학이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철학이 전통철학이나 수입철학이나, 관념론이나 유물론이냐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얼마만큼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있다.

그리고 한국 철학계로 볼때 타 분야의 학문과 보다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작업은 필수적이다.

만일 철학 자체 속에서만 논의된다면, 그 철학은 현실을 무시한 관념적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과의 치열한 대결속에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철학의 대중화 위해서는 철학계내에도 예측의 구조 파헤치는 노력 있어야

왔다기보다는 현실변혁에의 철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사회과학도들에게서 먼저 나왔다. 즉 현실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들은 그 나름의 세계관·방법론적 전제를 연구·검토하는 철학적 논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80년대 후반에 전개된 철학적 논쟁으로는 「사상논쟁」, 「사회과학 방법론 논쟁」, 「주체사상-맑스주의논쟁」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사회과학도들의 실천철학적 관심은 소장 철학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공동연구, 진보적 철학연구회조직등을 가속화시켰고, 그것은 다시 기성세대의 철학 연구자들에게 철학계의 또다른 실세로서 인정받기에 이르도록 하였다.

철학연구자들이 현실에 대해 능동적·집단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은 86년 상반기부터 서울대 철학과 내부에서 진행되었는데, 일년

학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철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진보적 학술단체 모임인 「학살단체협의회」에 참여하는 다른 학살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학술문화운동에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IV. 한국 철학계의 과제

이제 철학은 구름에서 내려와야 한다. 구름에서 내려와 지상의 비바람속에서 인간과 부비며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약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즘적 철학계에서도 「철학의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철학계의 반성의 결과임과 동시에 대중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철학의 대중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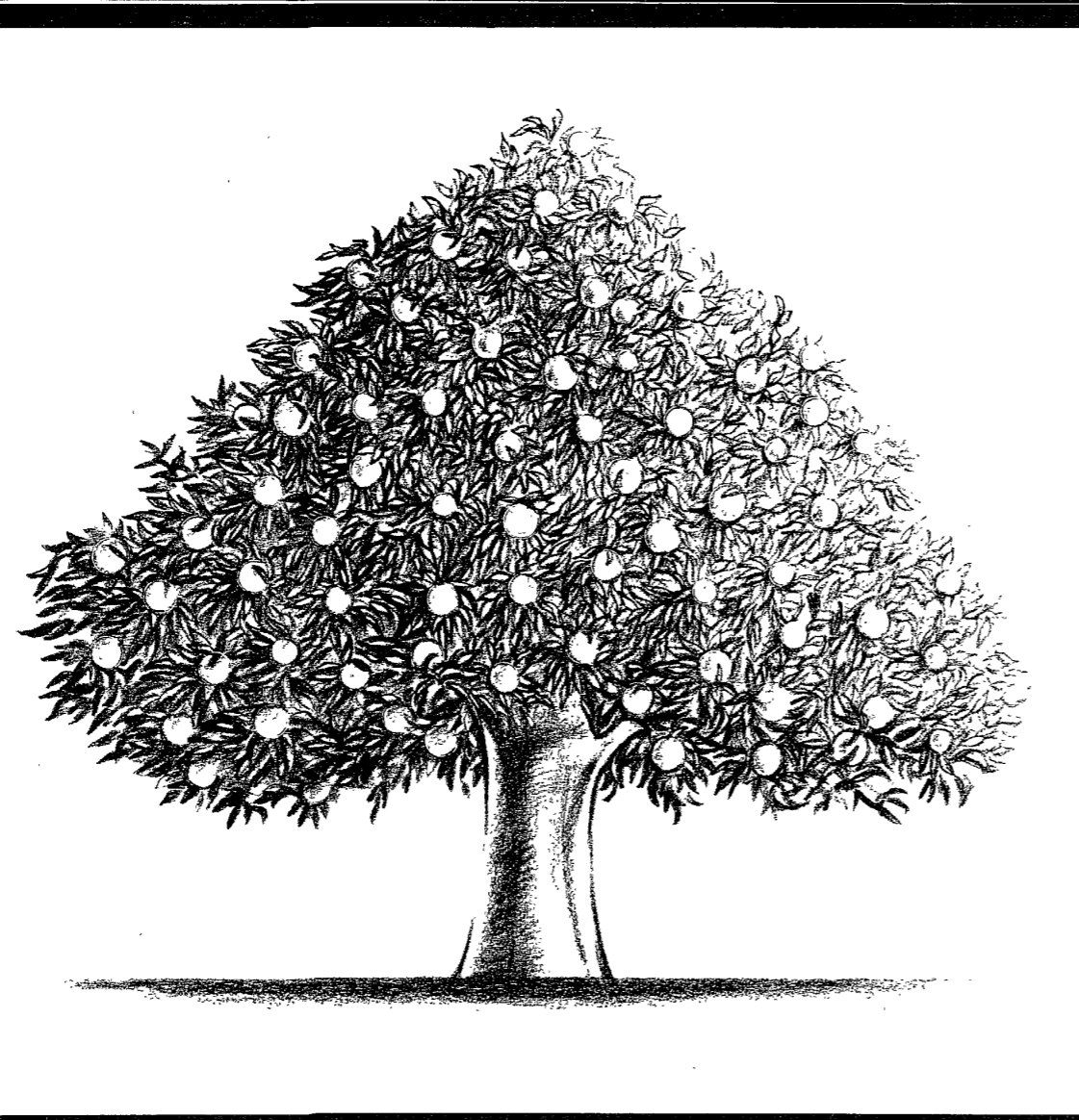
윤 용 택 (대원철·철학박사과정)

“江南種橘, 江北爲枳”

강남종橘, 강북위기...
 “강남의 귤을 강북에다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할 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들이 동쪽으로 간다고 따라가지는 않으십니까?
 친구가 서쪽으로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갈길정평에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환경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중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80년대 文學운동을 점검한다 ②

성숙한 민중의 세계관 반영

계급적 실천의 수준 그리고 그 수준에 연결된 작가의 대자적 인식이 소설의 가능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초반 우리 소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자기정당과 자기반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설가들이 그러하

「전태일 평전」 「공장의 불빛」등이 준 노동자의 모습은 기존 지식인 작가층을 비평하고 있다.

지 못했음에 관련된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증거로서 우리는 80년대 초반의 작가 임철우를 단념한 것이다. 「산산하늘」에서 「적선과 독가사」로 이어졌던 그의 작품은 비유와 암시, 그것이었다. 즉 정면보다는 아직 불가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정서와 정열을 겪었던가. 광주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실천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얻었던 것이고 소설은 또한 그러한 것이었다.

2. 광주는 노동자계급을 부른 다

광주의 정현과 그 반성 속에서 80년대 전반기가 지나가면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이 계급의 역할 강화가 사회적 실천의 중심부에 놓여졌고 비평가들도 노동자 문제의 실천적 필요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80년대 전반기에는 전문인들을 불러와 할 만한 노동자들의 수가 늘고 시골이 쏟아져나왔다. 석정남, 장남수, 유동우 등이 그렇다. 이태우의 소설도 이러한 흐름에 이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가, 생활감, 시 등은 아직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전망과 자기위상의 인식 하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었다. 자기인식의 단계, 자각의 단계에 다름 아니었다. 왜냐하면, 상층 노동자는 자기만을 보지 않고 세계를 본다. 그것도 변혁의 눈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러한 단계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계해야만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 시기의 노동자 계급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전태일 평전」이 붙여 준 충격이나 「공장의 불빛」 「서울로 가는 길」 「어느 돌맹이의 외침」이 준 노동자의 모습은 기존 지식인 작가들에게 일정한 선례를 강요했으며 이 제는 그 무엇을 하거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한편 광주의 진압체제와 관련하여 「부산 미문화원」 「서울미문화원」 「서울미문화원」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듯 미국 폭

은 계급주의 문제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 혹은 탐구가 시작된 시기도 80년대 전반기에 해당된다. 「무기의 그늘」이 그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에서 보다는 베트남전쟁에서의 미국 역의 역할을 그리는 것에 만족해 있었다. 그러나 분단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분단시대의 출발점인 미군정기에 대한 탐구가

3. 분단문제에 대한 탐구 80년대 전반기에 이 분단문

제에 대한 모색은 이문열의 「영웅시대」에서 출발한다. 허 무우의 「이동영을 내세워 결국 이애에 대한 혐오로 막을 내린 이 소설 이후 거창사건을 전문작가의 「적임」 송세로 「그늘」 하의 헤르닝으로 다룬 「겨울을 깨기」가 등장했다. 이 작품 속의 인물은 정말 무기력했다. 이는 이 무우의 민중들이 하대치나 열상같은 인물로 다시 계급화되었던 「태백산맥」(조정래)이 등장했고 우리는 분단의 기원과 이를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모습을 1989년까지 지켜볼 기회를 갖게

4. 6월투쟁과 7·8월 노동자대 투쟁 이후

1987년은 80년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6월의 민중투쟁은 6·29선언을 낳았고 이어서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하자 한 평론가는 「이제 문학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정말 그러했다. 양현석이나 박태순의 계 작품 속에서 확인되는 6월 투쟁은 7·8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고 노동자계급은 이 땅의 정치적 세력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위치를 세우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이 전면에서 등장했다는 사실은 문학에

5. 문학의 새로운 작가들이 그 들의 싸움과 투쟁을 담고 있다.

충을 보여왔던 이 소설 경향은 정도상의 「새벽까지」, 윤영호의 「빛」, 김민숙의 「다시 정조기 앞에 서다」, 남정현의 「해방」 등이 대표적이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문제가 과거 50년대의 전문학자나 70년대의 지식인 소설에서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경제적 예속」에 놓인 한국민중, 대미이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숙과 정도상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장래에 앞서 일

6. 문학의 새로운 작가들이 그 들의 싸움과 투쟁을 담고 있다.

정한 지향점의 설정이 전제되어 있어서 기형 미국인 사장의 설정이라는 직접적 대립구조를 일반화하는 한계를 노출한다. 윤영호의 「빛」의 경우 이안이라는 인물을 통해 팀스피리트호전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문

◆글 쓰는 차례

1. 시-민중적 삶의 실제화 <이동식·문학평론가>
2. 소설-주체적 역사인식의 확산
3. 평론-민중문학의 발전확대 <최철권·문학평론가>
4. 문예운동-사회변혁 역량의 조직성 <임규찬·노동해방문학연구소>
5. 90년대 문학운동의 전망-민중문학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임수근·문학평론가>

4. 6월투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7년은 80년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6월의 민중투쟁은 6·29선언을 낳았고 이어서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하자 한 평론가는 「이제 문학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정말 그러했다. 양현석이나 박태순의 계 작품 속에서 확인되는 6월 투쟁은 7·8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고 노동자계급은 이 땅의 정치적 세력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위치를 세우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이 전면에서 등장했다는 사실은 문학에

5. 문학의 새로운 작가들이 그 들의 싸움과 투쟁을 담고 있다.

충을 보여왔던 이 소설 경향은 정도상의 「새벽까지」, 윤영호의 「빛」, 김민숙의 「다시 정조기 앞에 서다」, 남정현의 「해방」 등이 대표적이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문제가 과거 50년대의 전문학자나 70년대의 지식인 소설에서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경제적 예속」에 놓인 한국민중, 대미이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숙과 정도상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장래에 앞서 일

6. 문학의 새로운 작가들이 그 들의 싸움과 투쟁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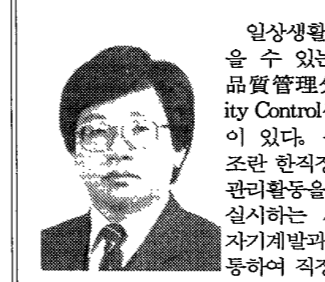
정한 지향점의 설정이 전제되어 있어서 기형 미국인 사장의 설정이라는 직접적 대립구조를 일반화하는 한계를 노출한다. 윤영호의 「빛」의 경우 이안이라는 인물을 통해 팀스피리트호전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문

7. 문학의 새로운 작가들이 그 들의 싸움과 투쟁을 담고 있다.

정한 지향점의 설정이 전제되어 있어서 기형 미국인 사장의 설정이라는 직접적 대립구조를 일반화하는 한계를 노출한다. 윤영호의 「빛」의 경우 이안이라는 인물을 통해 팀스피리트호전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문

달하나 千江에 自律과 他律

朴相範 (상경대학교수·산업관리)



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전원참가의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에서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활동에는 여러가지 기법이 있으나 품질관리활동은 일반적으로 시작한 이래로 그 효과가 인정을 얻어내지 못해왔다. 품질관리활동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의 품질관리활동은 종래나 표현만은 달리하여 한다는 말이 요즘을 가끔 대두되고 있다. 즉 통제(control)의 의미를 가진 관리의 방법은 상부의 권위를 나타내며 부하에게 일개 모르게 복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상·하의 구분없이 모두 협심노력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가 전제되는 방법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모든 방법은 목적을 위한 힘을 응집하기에는 불안하며 하위의 위치에 있는 사

업들에게 불만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갈등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며 자율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사기를 올릴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위자들이 요구하며 제시한 용어가 QPC(Quality Participation Circle)이다. QPC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타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관리(control)보다는 자율적인 참여(Participation)라는 용어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자적이고 하위에 위치한 인간의 심리는 이러한 용어 하나하나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조직이 특정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지시되고, 타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바탕에서 우리나라는 조직이 효과가 큰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율이란 타율보다도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혹시 무심코 지내오던 조직이나 집단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 간파되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상·하의 상호타협에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소위 힘있는 자나 집단이 이러한 약자의 입장을 꼭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해결의 과정에서 현실의 길이 나그 진행방향을 리얼리티 보 다 선행한 작가의 미국관이 작 가 되는 수행의 존재 속에서

「무기의 그늘」을 통해 미국·반제국 주의 문제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 와 탐구를 시작했다.

품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소설 경향은, 우리가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론의 수립과 함께 등장한 북한문학의 옹호자들의 문학적 전망의 계기에 대한 비판을 행하게 되 면, 어느 정도 극복될 것인지를 기대한다. 물론 북한문학이 유

5. 80년대를 마감하는 노동해 방운동의 등장

89년에 이르러 세련된 소설 경향의 잠재적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그 계급적 자성의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문학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우선 박노해라는 존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박노해가 소설을 쓰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시의 인식이 원천적으로 비추어 볼 때, 그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의 가능성을 이미 열었다는 점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한 가지 근거는 월간 노동해방문학, 노동원의 조직, 주간 노동자신문창간, 월간 문학의 수없이 발표된 각 노, 각 지역 노동자문화학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방희진, 김한수, 정화진, 한백, 정도상, 정지아, 김인숙, 김하경, 홍희담 등이 이룩한 노동문학의 성과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현실의 새로운 작가들이 그들의 싸움 과정에서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점, 바로 이것이 80년대 우리 소설을 마감하는 지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1990년이라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필두로 한 민중문학의 진흥과 여타간 각축전 예상

서경석 (서울대강사·문학평론가)

회장 선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학생회장은 학우대중의 의사를 바른 길로 결집시켜 내외 투쟁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지도자적 역할을 지닌 인사이야 한다.

남궁민 (문과대 영문과)

은방골 식당 개선 태야

은방골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적어도 하루에 한끼 이상 세끼까지의 식사를 학교에서 해결하게 된다. 그러면이나 식당-학생회관, 도서관, 강당-의 정결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이 민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의 식당에 대한 정결과 부식의 절 개선요구에 상관 없이 식당에서는 「선계 비지 맥」이라는 옛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식생활 반란과 비위생적 운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석양을 찾는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식당운영에 있어서 불가항설의 이유를 내세우지 말고 부식의 질을 좀더 높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나만 깨끗한 곳에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결과 먹고 남는 쓰레기, 식기 등을 스스로 치우는 버릇을 길러 깨끗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길 바란다. 대학이란 곳은 이제 더 이상 일부 특권층에 허용된 곳이 아니다. 학업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 바로 야간강좌인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번엔 문제가 되고 있는 야간강좌의

이성은 (인문대 국문과)

문화대진

「노찾사」공연 연기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기공연이 오는 18,19일 양일간 오후 4, 7시로 연극대 한양대학교 대강당에서 공연된다.

「정인숙...」공연

극단 「홍우」는 심화관작, 연출의 「정인숙의 화려한 여인」을 오는 17일까지 서울 신촌 청파로3국에서 오후4시와 7시 30분에 각각 공연한다. (312-8181)

「동작그만」공연

극단 부활은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동작그만」을 서울 동숭동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최성호작, 남궁민연출, 오후 4시30분, 7시30분 공연. (문의 TEL.762-7522)

「바람꽃」공연

극단창조극장이 오는 16일까지 하오 4시, 7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이병원작, 심재관연출의 「바람꽃」을 공연한다.

「어디만치...」공연

부용협회 「침묵회」에서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하오 7시,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김영희의 「어디만치 왔나」와 이노연의 「보날 보이는 달을」 공연한다. (문의는 739-3576)

「벽과 창」공연

극단 「엘미우스」에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오후 4시, 7시) 인천 답동 카톨릭회관에서 최인석작, 이계상연출로

동약廣場

「벽과 창」을 공연한다.

「정인숙...」공연

「동작그만」공연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벽과 창」공연

「정인숙...」공연

「동작그만」공연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동문소식

「Seven...」공연

「재플린 영화제」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벽과 창」공연

「정인숙...」공연

「동작그만」공연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동문소식

「Seven...」공연

「재플린 영화제」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벽과 창」공연

「정인숙...」공연

「동작그만」공연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동문소식

「Seven...」공연

「재플린 영화제」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벽과 창」공연

「정인숙...」공연

「동작그만」공연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동문소식

「Seven...」공연

「재플린 영화제」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벽과 창」공연

「정인숙...」공연

「동작그만」공연

「바람꽃」공연

「어디만치...」공연

